



# 2009년 대학평가 국제 세미나 : 주요국의 고등교육 질 관리와 대학의 대응

백정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운영팀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총장)는 2009년 11월 3일(화) 대학평가국제세미나를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와 대학의 대응' 을 주제로 대학평가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주요 나라의 대학평가 체제 및 경험을 공유하며 국내 대학의 자체적인 질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국제화 및 지식기반사회로 인해 고등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대학의 경쟁력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고등교육에 대한 상호인증문제가 대두되면서 고등교육의 질 보장 및 관리가 주요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학평가가 논의되며 강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학평가에 관한 국제세미나의 개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대학평가 국제세미나에는 이배용 대교협 회장을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 그리고 대교협

대학평가대책위원회, 대학의 자체평가위원과 대학평가 담당자, 민간평가·인증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는 한국무역교육인증원 이영련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와 대학의 대응에 관하여 상명대학교 이현청 총장, 호주 고등교육평가기관(Australian Universities Quality Agency: AUQA) 제넷 베어드(Ms. Jeanette Baird) 평가부장, 일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National Institution for Academic Degrees and University Evaluation: NIAD-UE) 신이치 히라노(Mr. Shin-ichi Hirano) 원장, 미국 공학기술인증원(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ABET) 밥 워링튼(Mr. Bob Warrington) 이사가 발표하였다.



이현청 상명대 총장(대교협 대학평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초강연을 겸해 대학평가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국제화로 고등교육의 질 보장 및 인증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확보하고 확인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대학평가가 중요시되고 있다. 21세기의 대학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대학교육 운영방식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학평가도 평가결과 활용 방법뿐만 아니라, 평가 주기, 분야, 항목, 기준, 목표 및 결과 제시와 관련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고등교육평가기관(AUQA)의 Jeanette Baird 평가부장은 호주의 대학평가체제와 대학의 대응이라는 발표에서 “호주 고등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AUQA를 설립·운영하고, 기본적으로 자체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각 대학은 스스로 정한 목표와 미션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고, 운영 개선의 일차적 책임은 대학들에게 있다”고 언급하였다.

일본의 대학평가체제와 대학의 대응에 대해서는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NIAD-UE)의 Shin-ichi Hirano 원장이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그는 “일본은 2004년

개정된 법률에 의해 모든 대학이 국가로부터 인증된 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대학의 교육 활동에 중점을 둔 평가가 이루어진다. 대학은 평가결과를 자체활동의 개선을 위해 사용할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해 대학은 사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공학기술인증원(ABET)의 Bob Warrington 이사는 미국의 기관인증, ABET공학인증체제와 대학의 대응이라는 발표에서 “미국 대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기관평가인증 및 전문 학문분야별 평가인증 기구들이 있고, 미국에서 인증은 교육의 질과 내용의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며, 대학들을 순위매기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ABET은 졸업생들이 엔지니어로서 현장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는가를 평가하고 보증하며, 공학교육의 향상을 추구한다. 미시간공대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등 개별 대학들은 ABET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개선을 시도하며 교육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와 기관평가인증 등 새로운 질 관리 체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외국의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질 관리 시스템과 대학의 대응, 발전전략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질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며, 대학 차원의 자율적인 질 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정착, 그리고 인증평가제도의 시행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향후 대교협은 대학과 대학평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평가관련 정보와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국제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호주와 일본의 인사들은 세미나를 전후하여 대교협을 방문해 대교협의 대학평가에 관심을 표명하고,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필 / 자 / 소 / 개

백정하

한양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고등교육분과 전문위원, 감사원 평가연구원 자문위원, 대교협 고등교육 연구소장 및 정책연구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대학총장의 지도성 연구”, “대학구조개혁의 문제와 방향 연구”, “고등교육재정의 확충 및 활용방안 연구”, “선진한국의 교육비전”(공저) 등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로는 고등교육, 대학평가, 교육정책 등이다.

